

LG전자, 로보틱스사업센터 신설 피지컬 AI 중심 조직개편 본격화

CEO 직속 조직... 송시용 지휘
사업개발 등 완결형 조직 운영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 발돋움



학습용 데이터팩토리 전담 조직도 둔다. 미래 로봇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팩토리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 데이터팩토리를 운영하며 얻는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RFM(로봇과운대이션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로 이어가기 위함이다.

LG전자는 로보틱스 사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이번 조직개편이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첩한 사업전략 수립과 실행, 핵심기술 내재화, 원가 경쟁력 확보 등으로 이어져 로보틱스 사업 전반의 실행력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로보틱스 사업이 완결형 조직으로 운영되며 향후 LG CNS, LG AI연구원 등 LG 계열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LG(One LG) 관점의 협업이나 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자회사 로보스타와 베어로보틱스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로봇에 로보틱스사업센터의

가정용 로봇을 더한 3각 축으로 로봇 시장을 전방위 공략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 서비스와 생활 공간을 아우르는 로봇 포트폴리오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특히 올해를 로보틱스 사업의 기반을 다질 원년으로 보고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 완제품과 더불어 액추에이터 등 로봇 핵심부품 사업, 데이터 생성·학습을 위한 데이터팩토리까지 갖춘 종합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서울 서초구 양재R&D캠퍼스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로봇 학습용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로봇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액추에이터는 60년 이상 축적해 온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외부 고객에 공급하는 사업화도 추진한다.

LG전자 관계자는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중심으로 사업개발과 영업, 공급망, 제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로보틱스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가온전선, 美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자회사 LSCUS 중심 사업 구체화

가온전선이 미국 자회사 LSCUS의 데이터센터용 버스덕트 장기 공급 계약을 앞세워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온전선은 중저압 전선 중심의 기존 사업 영역을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과 분배 설비가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가온전선의 미국 사업 확대는 자회사 LSCUS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LSCUS는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대용량 전력을 분배하는 버스덕트를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3년간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또 다른 빅테크 기업과는 5년간 약 4조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약은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프레임 계약이다. AI 데이터센터가 초기 구축 이후에도 서버 증설과 전력 설비 확장을 반복하는 만큼 추가 발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온전선의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이 2조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확보한 장기 계약 규모는 회사 매출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LS그룹 차원의 AI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해저케이블, 초고압직류송전(HVDC), 버스덕트 등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과 북미 전력망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데이터센터 수혜주를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전력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가온전선 역시 단순 전선업체가 아닌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기업 관점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LSCUS가 확보한 장기 공급 계약은 단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2030년 ESG 목표 조기 달성

2025-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G전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폐기물 재활용률 등 주요 환경 분야에서 2030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LG전자는 ESG 분야 주요 성과와 추진 현황을 담은 ‘2025-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폐기물 재활용률에서 각각 203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LG전자가 국내외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Scope 1) 온실가스와 간접(Scope 2) 온실가스 합계는 84만2000톤(tCO₂ eq,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집계됐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재생전력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배출량은 2030년 목표치로 세운 87만8000톤보다 낮았다.

제품 사용단계(Scope 3) 온실가스 저감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7대 주요 제품 사용단계의 원단위 탄소배출량은 2020년 대비 22.5% 줄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LG전자 국내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97.3%로, 2030년 목표치인 95%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윤리기준과 운영체계를 담은 ‘AI 책임경영’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차현정 기자

KG그룹, 주요 상장사 자사주 매입 완료

곽재선 회장, 주주 가치 제고 의지 피력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KG그룹은 곽 회장이 그룹 내 주요 상장사인 KG케미칼과 KG이니시스가 각각 10만 주(총 2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 완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 장내 매수를 통해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같은 장내 매수는 현재 두 회사가 보유한 견고한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의 주가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최고 경영진의 공동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곽 회장의 강력

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재 KG그룹 내 상장사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결실을 주주와 투명하게 나누는 ‘성과공유형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단순히 외형적인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실 있는 주주환원을 병행하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KG그룹 관계자는 “주주 가치는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이며,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와의 깊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향후 배당 확대, 투명한 경영 공시 등 다각적인 주주 환원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여 밸류업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 '수원하이테크센터' 전경.



원격진단하고 로봇활용 작업... 정비서비스 혁신

Q 르포
현대차 수원하이테크센터

연면적 5만1497㎡... 연구시설 연상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자동화 정비

“수원하이테크센터는 현대차의 서비스 철학인 신속, 정확, 친절을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현했다.”(장재훈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30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 수원하이테크센터 개관식에서 현대차의 핵심 차별화 경쟁력으로 ‘신뢰’를 강조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면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다.



소음이 발생한 위치가 모니터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차량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비. /양성운 기자

이날 개관식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호세 무노스 현대차 사장, 이한우 현대건설 부사장, 손찬모 현대모비스 부사장, 서울호 서아키텍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가 이날 처음 공개한 수원하이테크센터는 기존 자동차 정비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원형 타워 형태의 외관이다. 사각형 위주의 기존 서비스센터와 달리 미래 연구시설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빛의 유입을 조절하는 루버를 적용해 시간에 따라 다른 표정을 만들어냈다.

수원하이테크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5만1497㎡(약 1만5578평)로 조성돼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층에는 고객 전용 라운지인 ‘아트리움’과 차량 입고장, 상담 부스, 제네시스 쿼츠 전시 공간을, 2~4층에는 현대차(2층)와 제네시스 브랜드(4층)의 정비공간이, 지하에는 자동화 부품창고가 마련됐으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도 갖췄다.

수원하이테크센터의 핵심은 현대차 서비스 철학인 ‘신속·정확·친절’을 미래 기

술로 구현했다는 점이다. 현대차 최초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자동화 정비 환경을 구축해 정비 효율을 높이고 고객 대기 시간을 줄였다.

정비는 차량이 센터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원격진단 플랫폼(RDSP)이 예약 고객의 차량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예상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품과 정비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처럼 ‘기다리는 정비’에서 ‘예약 기반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미 현실이 됐다.

정비 현장에서는 사람보다 로봇이 먼저 움직인다. AMR(자율 부품 이송 로봇), AGV(자율주행 운반 로봇), ACR(자율 케이스 처리 로봇)이 필요한 부품을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무인 카리프트 시스템이 차량 이동을 담당한다. 작업자는 부품을 찾거나 차량을 옮기는 시간을 줄이고 정비에 집중할 수 있다.

이곳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데이터·NVH 분석실에서는 소음과 진동, 영상, 제어기 통신 등을 분석해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결함까지 찾아낸다. 품질합동분석실에서는 연구소와 본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품질 개선까지 연계한다. /양성운 기자 ysw@